唐代 學校와 科擧 關係의 재검토

- 그 적극적인 의의를 중심으로 -

吳 富 尹

(한라전문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전임강사)

目 次

Ⅰ. 서 론
Ⅱ. 학교와 과거제도의 관계
Ⅲ. 학교 교육의 쇠퇴 원인
Ⅳ. 학교 교육 진흥책
Ⅴ. 결 론

Ⅰ. 서 론

중국 학교(관학을 지칭, 이하 모두 같음) 교육의 출현은 漢武帝 元朔 5年(B.C.124년)의 「興太學」[1]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 후 위·진 남북조의 국자학·태학 병립시기를 거쳐 당대 국자감 6학제(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로 발전하는 동안 학교 교육은 제국 통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 냈다. 학교를 「관리 양성소」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관리 선발제도 역시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 고조 11년(B.C.196년)의 「求賢令」 반포[2]에서 연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위·진 남북조의 맹아를 거쳐 수대 과

1) 『漢書』 卷6 「武帝紀」 贊曰… 「孝武初立, 卓然罷黜百家, 表章六經, … 興太學」. 구체적인 사항은 『史記』 卷121 「儒林傳序」 및 『文獻通考』 卷40 「學校考」·『漢書』 卷88 「儒林傳序」 등에 보인다.

2) 「科擧」 정의에 대한 엄격한 고증은 결여되어 있지만 唐代 劉肅은 『大唐新語』 卷10 「釐革第二十二」에서 「漢高祖十一年, 始下求賢之詔. 武帝元光元年, 始令郡國擧孝廉各一人, 貢擧之法, 起於此矣」라 하였으며, 宋代 王欽若 등도 『冊府元龜』 卷650 「貢擧部·總擧序」에서 「自漢氏勃興, 儒術大興, 懸科以取士, 下詔以徵賢」라 하였다. 이는 「科擧」를 「取士」의 표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金諍씨는 『科擧制度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1990年 1月), p.17에서 중국 과거제도의 연원을 주대의 「鄕擧里選」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

거제도를 실시함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당대에 이르러 발전하였다.[3] 따라서 당대는 학교나 과거제도 두 방면에 있어 전통 제도를 총결함과 동시에 이를 완비하여 송 이후 학교 교육 및 과거 제도 실시의 견본이 되어주고 있다.[4]

이처럼 학교 교육을 「養士」, 인재 선발을 「取士」로 보았을 때, 이는 모두 군주의 제국 통치 편리 및 그 통치 수명 연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리 인재를 양성, 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그 흥쇠 여부는 전적으로 군주 일인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중국의 학교 교육 및 인재 선발제도는 한대부터 실시하고 있었지만, 위·진 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양자간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학교 교육은 국자학[5] 및 태학 두개의 학관이 전부였고, 여기에 입학하는 자제들또한 주로 귀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양사」의 기능은 훗날처럼 뚜렷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취사」의 주요 내용이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鄕擧里選」이나「孝廉方正」·「九品中正制」[6] 역시 꼭 학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의 교육 및 인재 선발 제도는 문벌 귀족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수·당에 이르러 과거가 성행하고 학교를 거쳐 과거에 급제해야만 관리로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정되면서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었고, 또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추이는「취사」가「양사」보다 중시되면서 급기야는 학교 교육을 과거 제도의 영역으로 종속시켜버리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당 후기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당대 전기를 학교 교육의 발전 시기였다면, 후기는 과거 제도가 성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종래 학계에서는 당 후기 학교 교육의 쇠락을 교육 제도의 전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 과거 제도를 각기 다른 영역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방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많아도[7] 양자간의 관계

---

3) 劉海峰,『唐代教育與選擧制度綜論』第4章「唐代科擧制度的發展與改革」(臺灣, 文津出版社, 民國80年 7月), p. 79.

4) 多賀秋五郎,『唐代教育史の研究』, 東京, 不昧堂, 昭和28年 2月, p.2.

5) 국자학의 출현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서의 기재가 없지만, 학자들은 『晉書』卷3「武帝紀」에 의거 武帝 咸寧 2年(276년)으로 보고 있다.

6) 달리 이를 「九品官人法」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中村印刷株式會社, 昭和 31年 3月 初版),pp.92~96.

7) 두 방면에 대한 論文 및 專書로는 鄧嗣禹,『中國考試制度史』(臺北, 學生書局, 民國56年 臺灣初版); 侯紹文,『唐宋考試制度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62年 7月初版); 高明士,「隋唐教育與貢擧」上·下(大陸雜誌 第69卷 第4·5期, 民國73年 10·11月); 李樹桐,「唐代的科擧制度與士風」(『唐史新論』,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74年 9月); 呂思勉,「選擧」(『中國制度史』上,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75年 5月初版); 卓遵宏,『唐代進士與政治』(臺北, 國立編譯館,民國76年 3月初版); 金諍,『科擧制度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1990年 9月初版); 劉海峰,「唐代學校與科擧的消長」(『唐代教育與選擧制度綜論』第3章, 臺北,文津出版社, 民國80年 7月初版); 謝青·湯德用主編,「中國古代科擧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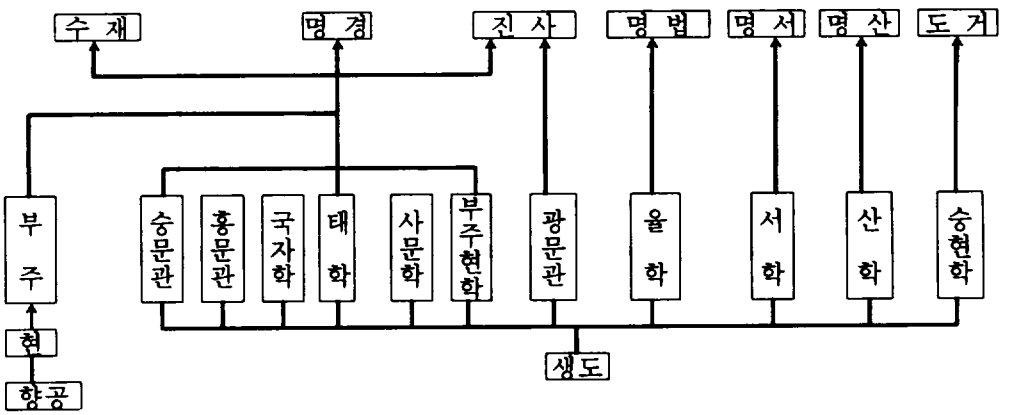
변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논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졸자는 당대 후기 학교 교육과 과거 제도를 교육사의 같은 영역으로 보아 양자간의 消長 관계를 당·송 교체기의 새로운 사회 변화를 주도한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려 한다. 서투른 논술이 되겠지만, 많은 질정을 바란다.

Ⅱ. 학교와 과거제도의 관계

漢 이래 중국의 학교 교육은 통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면, 수대 구품중정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는 명목상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간에는 「養士」와 「取士」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두가지 사항은 군주 일인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 통치의 중요 요소였고 수단이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 이전까지의 양자간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다. 당대에 들어 과거가 유행하고 학교 출신자의 경우 반드시 과거를 치뤄야만 관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부터 학교 교육과 과거 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고, 학교 교육은 과목 분배 및 교학 내용상에 과거의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다음의 도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표1. 당대 학교와 과거 관계표】



試」(『中國考試制度史』第2章, 黃山書社, 1995年 2月); 宮崎市定, 『科擧』(大板, 秋田屋, 1946年); 福島繁次郎, 『(增訂)中國南北朝史硏究』(東京, 名著出版社, 1979年) 第2章 「唐代の選擧制」등을 들 수 있다.

위 도표를 통해 당대 국자감 산하 국자학·태학·사문학 등은 과거 과목에 준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이는 결코 아니다. 명경과의 경우 그 九經取士는 당시 유학 교육 기관인 국자학·태학·사문학의 교학 내용과 일치하고 있지만, 이는 그 교학 내용이 과거 내용에 종속되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경과 제도가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자학·태학 등 경학 교육의 출현 시기는 과거제도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 과거재도는 수대에야 출현하였지만, 이 두개의 학관에 대한 교육은 늦어도 晉 武帝 咸寧 2년(276년) 국자학이 출현[8]한 후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율학·서학·산학의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율학의 경우 晉代에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隋代에는 大理寺에서 그 교육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수대 국자감 산하에는 算學도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과거 과목 가운데 명법·명서·명산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당대 이들 학과에 대한 과거 과목은 3개 학관의 교육 내용에 따라 설치한 것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唐六典』(卷21, 「國子監」條)·『通典』(卷27, 「職官9」 등에 보이는 이들 3개 학관에 대한 교육 내용은 명법·명서·명산과의 시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을 안배한 것이 아니라 과거 내용이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추어 규정한 것이다.[9]

여하튼 과거 내용을 학교 과정에 준해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그만큼 강화하려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재 양성과 선발을 통일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당대 초기에는 과거제도의 영향이 후기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가능하였을 것이다.[10]

唐代 초기의 군주들은 학교 교육 발전에 한치의 여력도 아끼지 않았다. 고조 李淵으로부터 태종을 거쳐 현종으로 이어지는 약 140년의 前唐時期, 이들이 학교 교육 발전에 헌신한 노력은 중국 교육사의 발전 과정을 망라할 정도로 대단하다. 특히 「玄武門의 變」으로 형을 살해하고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태종 李世民이 학교 교육 발전에 쏟은 열정은 자신의 극학무도했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사가들의 극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 於國學增築學舍一千二百間, 太學·四門學博士亦增置生員, 其書·算各置博士·學生, 以備藝文, 凡三千二百六十員. 其玄武門屯營飛騎, 亦給博士, 授以經業, 有能通經者, 聽之貢擧.是時四方儒士, 多抱負典籍, 雲會京師. 俄而高麗及百濟·新羅·

8) 『晉書』 卷3 「武帝紀」.
9) 劉海峰, 앞의 책, p.55.
10) 李樹桐, 앞의 「唐代科擧制度與士風」, pp.65~68.

高昌·吐蕃等諸國酋長, 亦遣子弟請入於國學之內. ……儒學之盛, 古昔未之有也.[11]

당시 태종의 교육 발전에 대한 열의는 국내외에 학술 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더구나 정관 초 「학생들 가운데 大經 하나만이라도 통달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로 나아갈 수 있다」[12]는 학관 학생에 대한 우대조치는 관리로 나아가려는 지식분자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기에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결과 「(高宗)永徽之後, 以文士亨達, 不由兩監者稀矣. 於時場籍, 先兩監以後鄕貢. 蓋以朋友之臧否, 文藝之優劣, 切磋琢磨, 匪朝伊夕, 抑揚去就, 與衆共之」[13]라 할 정도로 학교 출신자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이는 학교가 당시 지식분자들에게는 관리 진출의 주요 루트였고, 이울러 名師들로부터 傳道·授業·解惑 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동학들과 切磋琢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상적인 教育園地였기 때문이다. 전통 학교 교육이 지니고 있는 매력 및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원 등 사학이나 개인 독학을 통해서는 추구할 수 없다. 훗날 韓愈 등 교육자들이 종종 말하는 「이전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고종 이후 진사과가 유행할 때만 하더라도 「進士不由兩監者, 深以爲恥」[14]라 할 정도로 최고 각광을 받은 자는 학관 생도 출신자였다. 현종 개원시기(712~741년)에도 명신들은 대부분 학교 출신자였다.[15]

그런데 현종 천보시기(742~755년)에 접어들면서 중앙 정치기강의 해이는 교육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과거는 계속 중시되고 있었지만, 중앙 학생들은 유력자를 중심으로 結黨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시험관을 매수하는 등 교육 기강 자체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16] 그 중 755년의 安史之亂은 「太學空設, 諸生蓋寡. 絃誦之地, 寂寥無聲, 函丈之間, 殆將不歸」,[17] 학교 교육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 후 대종·문종·무종은 국자감 교육 중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斯乃救墜覆者耳. 奈何人心旣去, 雖拘之以法, 猶不能勝」[18], 이미 떠나버린 인심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학교는 갈수록 경시되고 있었다. 문종 태화 7년(833년)과 무종 회창 5년(845년)에도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 경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公

11) 『舊唐書』 卷189上 「儒學傳序」.
12) 주)10.
13) 『唐摭言』 卷1 「後論」.
14) 『唐摭言』 卷1 「散序進士」 條.
15) 劉海峰, 앞의 책, p.57.
16) 『唐國史補』 卷下 「禮部置貢院」 條.
17) 『唐大詔令集』 卷105 「崇太學詔」.
18) 『唐摭言』 卷1 「兩監」 條.

卿士族 자제 및 공거인은 반드시 국학 수업을 거쳐 국자감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만 공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강구하였지만, 오히려 지방 주현 출신의 鄕貢을 중시하고 국자감 출신의 생도를 경시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당대 후기의 학교 교육은 전기와 비교해 볼 때「養士」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과거 제도는 갈수록 번창하여 그 영향력은 정치·문화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었다.

Ⅲ. 학교 교육의 쇠퇴 원인

학자들은 당대 학교 교육과 과거제도를 비교하여 말할 때 중앙집권적 집권체제가 붕괴해 버린 安史之亂를 기점으로 양자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며, 과거 제도의 흥성이 곧 학교 교육의 심각한 쇠퇴를 초래한 主因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학교와 과거제도 양자간의 비교 우열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전체적인 면모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당대 후기 과거 과목의 번창 등 과거 제도가 이전에 비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19] 그가 학교 교육에 끼친 영향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학교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발전의 한계성, 그리고 과거제도 자체의 발전 필연성까지 함께 놓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졸자는 당시 학교 교육의 쇠퇴 원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면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싶다.

첫째 학교 교육 발전의 한계성을 들고 싶다. 그 한계성은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은 곧 정치의 종속물이었다는 점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학교는 처음부터 官辦教育, 즉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관학)으로 군주가 필요로 하는 자기 인재를 양성하여 이를 제국 통치의 첨병으로 기용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때문에 학관의 임명에서부터 입학 및 수업, 졸업 규정은 모두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 전달보다는 군주의 詔令을 잘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제국의 통치 안정 및 그 수명 연장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인재 양성소」의 실질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한대 이후 중국의 학교 교육 이상은 유가주의를 표방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경전 학습

19) 당대 과거 과목의 전반적인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松本明,「唐の選擧制に關する諸問題 -特に吏部科目選について-」(『鈴木俊先生古稀記念東洋史論叢』,東京,創文社),pp.391~410; 高明士,「隋唐貢擧制度對日本·新羅的影響」(林天蔚·黃約瑟主編,『古代中韓日關係研究』,亞細亞研究所, 香港大學, 1987年), pp.68~84에 상세하다.

을 통해 「希聖希賢」에서 「成聖成賢」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당대, 나아가 근대 서양 교육이 실시되기 이전 중국, 심지어 동아시아 전통 교육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실은 군주 자신의 통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학생들 역시 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관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가교육에서는 교육의 표상으로 「聖賢」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시대마다 그 규정이 모호하여 때로는 정치 우상인 周公이, 때로는 教育大家 孔子가 서로 교체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20] 「治統」이 「道統」보다 강조될 때에는 주로 周公이 先聖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개국 군주의 교육 발전 초기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통치 체제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된 후에는 孔子를 先聖으로 규정하여 유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의 교육 기풍을 사회에 만연시킴으로서 통치의 안정을 구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당 태종의 교육 정책이 그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의 발생 배경에는 정부의 확고한 教育立志가 없었고 교육이 항상 정치의 종속물로 부침만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은 시종 정치 환경에 지배될 수 밖에 없었다. 군주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강화되었을 때에는 학교 교육은 대단히 발전하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일례로 당 태종 정관 및 현종 개원 시기에 漢 이래 전통 교육 제도를 결집하고 나아가 대내·외에 학술 왕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貞觀의 治」와 「開元의 治」로 대변되는 통치 안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安史之亂 후 중앙 집권 체제의 동요에 따른 정치 환경의 불안정으로 정치 기강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학교 교육마저 쇠퇴해져 버린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의 한계 때문이다.

한 이래 중국 교육사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부단히 노력해 왔었지만, 이는 제사 및 예의를 관장하는 「太常寺」에서 「禮部」로의 관할 기구 변화에 불과한 것일 뿐, 교육은 여전히 군주 일인의 조령에 달려 있었다. 교육 사업을 통한 정치 및 사회 환경 개혁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당 후기 과거제도가 성행하고 詩賦를 중시하는 사회 기풍이 만연되었을 때 경학 중심의 학교 교육이 외면시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중국 학교 교육이 지니는 선천적 결함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여 자국내 학교 제도를 수립한 한국 등 주변국가의 전통 교육 역시 이러한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20) 역대 왕조의 「先聖先賢」 기준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拙文, 「7·8世紀 唐代 學校制度의 教育史的 意義」(『東아시아硏究論叢』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1972년), pp.103~105 참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대 학교 교육의 쇠퇴 조짐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가? 이에 대한 사서의 명확한 기록은 없다. 학자들 역시 막연히 안사지란 이후라고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졸자는 그 시기를 최소한 현종 개원 21년(733년)으로 보고 싶다. 그 이유는 그 해에 내린 다음과 같은 칙문을 통해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許百姓任立私學, 欲其寄州縣受業者, 亦聽. 州縣學生, 年二十五以下八品者, 若庶子年二十一以下通一經及未通經而聰悟有文辭史學者, 入四門學爲俊士. 諸州貢擧·省試不第, 願入學者, 亦聽.[21]

즉, 백성에 대한 사학 설립 허용 및 지방 주·현 관학의 입학 개방, 文辭·史學者에 대한 중앙 학관 입학 허용 조치 등은 대단히 괄목할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졸자는 이는 당시 관학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수단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그간 불허하였던 사학 교육을 특별히 인정할 경우 관학에서 사학으로의 교육 중심의 이전까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이를 감수하며 허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통의 경학 교육만을 주장해 온 학관, 그것도 중앙 학관에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文辭·史學者를 끌어 들이고 있는 점, 나아가 지방 공거 및 성시 낙방자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점 등은 당시 지방 및 중앙 학관을 통틀어 학생수가 절대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를 충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高宗 調露 2年(680년) 考功員外郎 劉思立이 明經 및 進士科 응시자에 대해 「帖經」을, 그리고 진사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雜文」을 추가하여 시험하도록 상주한 후 경학을 중시하는 국자감 교육 내용은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자감 자체에서도 시류를 반영하듯 진사과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22]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지방 주·현학에서 중앙 국자감에 이르기까지 관학 교육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가운데에서 그 진흥책을 모색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늦어도 현종 개원 21년(733년)을 기점으로 관학 교육은 이미 쇠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정치 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

21) 『唐會要』 卷35 「學校」 條.

22) 『唐六典』 卷21 「國子監條」에 「凡六學生,每月有業成上於監者,以其業與司業·祭酒試之.明經帖經,口試·策經義,進士帖一中經,試雜文·策時務,徵故事.其明法·明書·算,亦各試所習業,登第者,白祭酒,上於尙書禮部.凡六學生有不率師教者,則擧而免之」라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학교 교육에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주로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당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의 盛世, 즉 盛唐時期는 이제 굳이 755년 안사지란의 발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늦어도 개원 21년(733년)부터 당은 이미 쇠망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사의 관점에서 볼 때 안사지란은 하나의 역사 사건(a fact of history)에 불과한 것일 뿐, 당대 전·후기 구분의 절대 연대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안사의 난의 발생(755년)과는 아직 22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태종의 「貞觀의 治」에 이어 두번째 출현한 중국사의 盛世, 즉 현종의 「開元의 治」 의종말(741년)까지는 아직도 8년 가량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교육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종의 정치 및 교육 발전에 대한 열의가 점차 시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역대 문물 제도는 태종의 정관 및 현종의 개원 시기를 거쳐 완비될 정도로 제도사적 위치에서 이 두 군주가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대단하다.[23] 교육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두 군주가 중국 역사에 걸출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교육 발전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24] 그 만큼 태종 및 현종은 「양사」, 즉 학교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자감 교육 체제의 확립 및 先聖先師制·從祀制 등 학례의 중요성 강조 등은 태종의 업적으로 돌릴 수 있고, 학교 교육의 보편화 및 지방 학교 학생의 중앙 국자감 교육 허용 등 교육 저변의 확대는 현종의 업적으로 돌릴 수 있다.[25] 사실 사적 살펴보더라도 「본기」나 「선거지」에 반영된 이 두 군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취사」보다 「양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단, 현종 개원 이후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가 쇠락해가는 현실에서 관학과 상대되는 사학 교육 허용 등 교육의 저변 확대가 당시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둘째, 당대 후기 학교 교육의 쇠퇴는 당시 사족 지위의 약화 및 정치의 개방성과도 관계가 있다.[26] 과거는 평민, 특히 자영농층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사족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었다. 당대 전기만 하더라도 중앙 국자감 6학 및 홍문·숭문관의

---

23) 「貞觀之治」 및 「開元之治」에 대해서는 趙克堯·許道勳, 『唐太宗傳』(北京, 人民出版社, 1991年 12月) 및 趙克堯·許道勳, 『唐玄宗傳』(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1月)에 상세하다.

24) 당시 두 군주가 교육 사업에 대한 결과는 『舊唐書』 卷198上 「儒學傳序」에 상세히 묘술되어 있다.

25) 상세한 설명은 앞의 拙文, pp.102~105 참조.

26) 劉海峰, 앞의 책, p.59.

입학은 개인의 재질과는 무관한 祖父의 資蔭에 의해 선천적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이들이 대부분 과거를 통해 정치권으로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위·진 남북조 이래 형성되어 온 정치·교육권의 문벌 사족화 경향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27]

당시 홍문·숭문관을 비롯 국자학·태학·사문학 등 유학 교육 기관은 귀족자제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학과였다. 특히 당시 유가경전을 통해 정치 인재를 선발하는 명경·진사과는 모두 이들 학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관별 입학의 계급제 및 정원제에 있었다. 설령 귀족자제라 하더라도 각 학관별 입학 품계 및 정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세를 보장받지 는 못했다.[28] 특히 과거 응시자의 경우 반드시 학교를 거쳐야만 한다는 규정이 제정된 이후 이러한 현상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반면, 지방행정 체제의 발달에 따라 吏才의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게되자, 정부에서는 부득불 교육의 개방 및 입학 정원의 확대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하층 지방 관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문학」에 대한 대대적인 평민 및 지방 학생의 입학 허용 조치가 바로 이러한 면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종은 개원 21년(733년) 5월 민간의 사학 설립 허용과 함께 평민 자제의 지방 관학 입학을 허용하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을 또한 중앙 교육 체제로 끌어들이는 일련의 교육 개혁 조치안을 발표하였다.[29] 더구나 평민자제로서 사문학에 입학한 경우 자신의·노력 여하에 따라 국자학까지 승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었다.[30] 이를 도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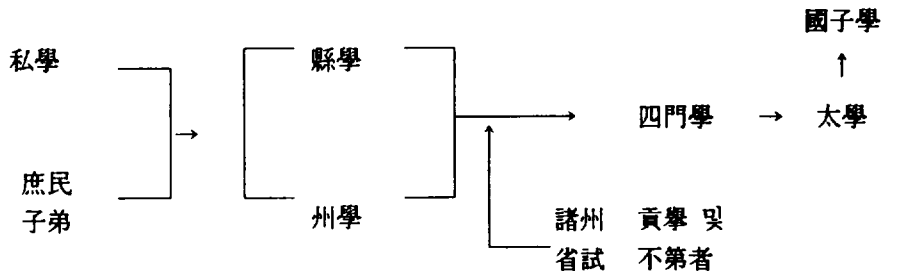
27) 孫國棟,「唐宋之際社會門第之消融」(香港,『新亞學報』第4卷 第1期, 1979年),pp.246~250.

28) 당대 학관별 입학 품계 및 정원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출입이 있는데 이는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唐六典』(卷21「 國子監」條) 기재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졸자는 이를 도표로 정리한 바 있다.「唐、新羅教育文化交流之研究』第2章 「唐代學校教育制度的特徵」(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1996年 12月)【표1 唐代中央官學學官表】·【표2 唐代中央官學入學規程一覽表】참조.

29)『唐會要』卷35「學校」條에 「許百姓任立私學,欲其州縣受業者,亦聽」와 함께 「州縣學生,年二十五以下八品者,若庶子年二十一以下通一經及未通經而聰悟有文辭史學者,入四門學爲俊士. 諸州貢擧·省試不第,願入學者,亦聽」의 조칙이 실려 있다. 그런데 『新唐書』卷44「選擧志」·『文獻通考』卷46「學校考7·郡國鄉黨之學」조에서는 이를 開元 7年의 조서로 나열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高明士씨의 고증에 따른다.

30)『新唐書』卷44「選擧志」에는 역시 개원 21년의 조칙으로「四門生補太學, 太學生補國子學」의 조칙도 보인다.

【표2. 唐代學館升學表】



당시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평민 자제로서 중앙의 최고 학부인 국자학까지 승관할 수 있다는 것은 관학 교육이 이미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과거 문벌 사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중앙의 유학교육 기관도 쇠퇴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표명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곧 그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현종 천보연간(742~755載), 특히 안사의 난이 발생한 후 당의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 걸친 변화는 중국 사회 체제의 중대한 곡절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대신 당·송 변혁이라는 새로운 기운을 몰고 왔다.

교육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 교육과 과거제도의 관계는 이를 기점으로 무게 중심은 과거쪽으로 기울었다. 취사면에서도 학교 출신의 「生徒」보다는 「鄕貢」을 중시하였다. 이는 달리 시대적 진보 의의를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학교 교육은 이전에 비해 위축되었어도 교육 기회 및 대상은 오히려 확대되는 등 교육 발전의 적극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종 정원 19年(803년) 韓愈는 사문관박사를 대신하여「公卿子孫, 恥遊太學, 工商凡冗, 或處庠序」라 하여 태학 및 사문학에 공상 잡배들까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國子館依六典(필자주:「唐六典」을 지칭), 其太學館量許取常參官八品以上子弟充, 其四門館也量許取無資蔭有才業人充」[31]. 즉 安史之亂 이전의 전통 제도에 입각하여 선발할 것을 청원하였지만, 이는 개인적인 욕심이었을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달리 해석해 보면 이는 종전 귀족 중심의 교육의 경직성 및 사회 체제를 타파해

31) 이상 「韓昌黎文集校注」卷8「請復國子監生徒狀」에 보임.

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 후기 농업 및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工商子弟들과 귀족 자제들의 교유, 그리고 인재 선발에 있어 가문을 불문하는 현실은 당시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그리고 기존 문벌 사족들의 특권에 조롱이라도 하듯 국자감 학관의 순위까지 바뀌고 있었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국자학보다 태학이 존숭되었다. 이는 위·진·남북조시대 문벌 귀족사회가 강화되면서 갑자기 출현한 국자학이 태학을 지배한 것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다.[33] 孫國棟씨도 唐末 五代 門弟 사회의 파괴 원인을 주로 교육 저변의 확대와 공거 관념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34] 즉, 당말 오대에 이르러 위·진 남북조 이래 고착되었던 문벌 귀족사회의 와해에는 교육제도의 변화도 그 한 몫을 담당하였다는 얘기이다.

셋째, 당대 국자감 생도들의 추천 비율 하락 및 과거 급제 인수의 감소 또한 학교 교육을 침체에 빠뜨려 버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당대 전기만 하더라도 진사 급제자의 절대 다수는 생도, 즉 국자감 출신들이었다. 王定保(『唐摭言』 卷1「鄕貢」條)나 馬端臨(『文獻通考』 卷29「選擧2·唐登科記總目」)은 고종 함형 5년(674년) ~ 중종 경용 원년(707년) 사이 六榜進士 급제자 및 향공 급제자를 명기해 놓고 있는데, 학관 생도들의 급제자는 평균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35] 이는 「고종 영휘 연간(650~655년) 이후 文儒로서 영광을 차지한 자 가운데 兩監(필자주:長安의 국가감과 洛陽의 국자감을 합칭) 출신의 아닌 자는 드물었다」[36], 「현종 개원 이전 진사급제자 가운데 兩監 출신이 아닌자는 고개를 못들고 다닐 정도였다」[37]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종 개원·천보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우선 兩監에서 추천되어 올라가는 생도는 많았으나 급제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원 16년(728년) 국자제주 楊踢은 「興唐時 兩館에서 추천하는 인재는 최소한 천명 이상, 그 가운데 열에 두명 이상은 급제하였지만, (중략) 최근 인재 선발은 매년 기껏해야 명경·진사 백여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兩監 출신자의 급제는 바늘 구멍에 소 들어가는 격으로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괜히 官廩만 축내어 버리는 꼴이되고 있으며, 박사 등 學官들은 天祿만 낭비하는 자가 되어 버리고 있다」[38]고 진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

32) 徐連達·吳浩坤·趙克堯 共著;중국사연구회옮김, 『中國通史』(청년사, 1990년 6월 3판), pp.392~397.
33) 劉海峰, 앞의 책, p.60.
34) 앞의 글, pp.230~258.
35) 劉海峰씨는 이를 도표로 열거하여 전체 비율을 계산해 주고 있다. 앞의 책, p.61, 【唐前期生徒占進士及第總數比例擧例表】.
36) 『文獻通考』 卷29 「選擧2」 云…「永徽以後, 以文儒享達, 鮮不由兩監者」.
37) 『唐摭言』 卷1「兩監」條云…「開元以前, 進士不由兩監者, 深以爲恥」.

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숙종은 건원 원년(758년) 국자감 생도들의 급제율 상승을 위해 「우대조치」를 반포하였지만,[39] 太學生 何蕃의 경우 진사과 급제를 위해 20년을 태학에서 머물렀다는 일화가 이를 입증해 주듯[40],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우대조치를 반포한 시기도 楊暘의 진언 후 이미 30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진사·명경과 웅시자에 대한 인원 감소 조치와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제는 천우 2년(905년) 11월의 칙문을 통해 國學과 諸道에서 추천하는 명경 웅시자는 일률적으로 2인에 한정토록 하였다.[41] 그러다 보니 당시 몇 십개에 불과한 여러 道 및 국자감에서 추천한 웅시자라야 고작 백여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무종 회창 5년(845년) 국자감 한군데에서만 추천한 명경과 웅시자 300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42], 생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자 이듬 해(906년) 정월 국자감생 郭應圖 등은 60명의 연서로 울분을 토로하면서 참작해 줄 것을 上狀하였고,[43] 지방 정부 역시 추천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44]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그 조치를 취소하고 예년대로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45]

당대 후기 진사과 및 명경과 급제를 위해 만년 학관 생활을 해야하는 현실, 그리고 정부의 웅시자 제한 등의 조치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버린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따라서 당대 전기처럼 「遊太學者多矣. 咸一切欲速, 百端進取」[46]의 활기찬 국자감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학교 교육의 침체는 명경·진사과 지위의 昇降 및 급제 기준의 개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과거 과목 순서는 수재· 명경·진사 순이었다. 수재과의 경우 급제 기준이 너무 어려워 별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고종 영휘 2년(651년) 이후에는 폐지해 버렸다.[47] 그래서 명경 및 진사과는 학생들에게 「白衣公卿」·「一品白衫」의 수

38) 『新唐書』 卷130 「列傳·楊暘」 條云…「唐興,兩監擧者千百數,當選者十之二,(中略)今考功限天下明經·進士歲百人,二監之得無幾,然則學徒費官廩,而博士濫天祿者也」.

39) 『冊府元龜』 卷640 「貢擧部·條制2」에는 동년 4월에 내린 다음과 같은 조서가 실려있다.즉. 「國子監學生,明經丶法,帖丶策口試各十,幷通四以上,進士通三與及第.鄕貢丶明經准舊式」.

40) 『韓昌黎文集校注』 卷2 「太學生何蕃傳」.

41) 『舊唐書』 卷20下 「哀帝本紀」.

42) 『唐摭言』 卷1 「會昌五年擧格節文」 條.

43) 『冊府元龜』 卷641 「貢擧部·條制3」 條에는 應圖 등이 上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즉. 「應圖等早辭耕稼,夙慕詩·書,自拋鄕邑之中,便忝國庠之內,稽遲守學,皤軻于時,未諧昇進于朝,却抱減退之患. 苟或諸道解送,監府同條,實謂首尾難分,本枝無異.伏請聞奏,俾塗遲恩者」.

44) 『冊府元龜』 卷641 「貢擧部·條制3」 條에는 27명씩이나 추천, 급제시켰던 河南府에서 행정상의 불만을 품은 「若只送二人,必恐互有爭論,難以指揮」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45) 『新唐書』 卷20下 「哀帝本紀」.

46) 王勃, 『王子安集』 卷7 「送韻赴太學序」.

47) 任育才, 「科擧類才」(『食貨月刊』 復刊 第7卷 第4期, 民國66年 7月),pp.151~153.

단이요, 기회였다. 그런데 진사과 내용 및 급제 기준의 개혁이 예기치 않게 학교 교육 발전에 직접 타격을 주고 말았다.

唐初 진사과 시험은 시무책 하나였다. 그 후 고종 조로 2년(680년)에 이르러 帖經과 雜文이 추가되었고, 현종 개원 이후에 이르러 잡문은 대부분 詩賦로 대체되었다. 더구나 당 후기에는 詩賦·文辭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진사과를「文學之科」, 그 급제자를 「以文中第」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48] 그러나 국자감 유학 교육 기관인 국자학 등 3개 학관과 지방 주·현학의 교육 목표는 처음부터 유가 경전에 입각한 관료상을 만들어 내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試賦 등 소위 문학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9세기 중반, 무종 회창 5년(845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자감생 가운데에는 명경과 급제자가 단연 돗보였다. 그런데 명경과 인기가 갑자기 하락하고, 진사과가 세인의 관심을 끌게되면서 사람들은 과거를 중시하고 학교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인은 명경과의 인기 하강과 진사과의 상승이란 반대적 개념에서 찾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사과 시험 자체의 개혁에서 규명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

천 수백년간 중국 교육사가 일관적으로 견지해 온 학교 교육은 경학, 즉 유가경전을 종지로 삼는 「儒學教育」이었다. 이는 곧 중국 전통의 관료상이었고 인간상의 표본이었다. 그런데 경학에만 길들어진 이들이 시류에 합류하여 吟詩作賦에 익숙한 文學鄕貢들과 진사과를 치뤘을 때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때문에 진사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문학 수준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학교 교육을 외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학교 교육이 외면시됨에 따라 교육 장소 및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舒元輿는 국자감을 참관하고 난 후 그 황량한 상황을 『問國學記』를 통해 토로하고 있다.[49] 柳宗元은「太學生聚爲朋曹, 侮老慢賢」라 하여 교육 정신의 실종을 고발하고 있다.[50] 더 이상 「治道同歸, 師氏爲上, 化人成俗, 必務於學, 俊造之士, 皆從出此」[51]의 전통 교육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사지란 이후 중국 전통 교육의 특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어느 교육사가의 말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당대 후기 入仕에만 급급하여 과거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 및 연이어 발생하는 동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이 학교 교육을 이처럼 처량한 지경으로 전락시켜버린 主因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책임은 그러한 시대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48) 『唐會要』 卷76「進士」條 및 『唐摭言』 卷8「及第後應居」條에 보인다.
49) 문장은 『文苑英華』 卷816에 보인다.
50) 『柳宗元集』 卷34 「與太學諸生喜詣闕留陽城司業書」.
51) 『新唐書』 卷11 「代宗本紀」.

作人과 作官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취사에만 급급해 온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파급 효과, 즉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다. 학교 교육은 이처럼 타락, 쇠퇴하였지만 교육열의 상승은 정부로서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교육 특권」 파괴의 절호의 기회였다. 사실 당대 후기 서원이나 私家講學, 가정 교육의 보편화 등은 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당대 사학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의 논급이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언급하지 않겠다.[52] 대신 본문에서는 사학 교육이 당시 교육 활성화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중국 사학 교육의 연원은 대단히 길다. 그러나 당대 이전에는 국학, 즉 관학 교육에 밀려 발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이 그 일반적인 추세였다면, 당 후기 국학 교육의 쇠퇴에 따른 사학 교육의 흥기는 교육 중심을 사학으로 이전시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인구의 저변 확대에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사학 교육의 진흥 발전에는 조정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지방 관리 혹은 지식분자들의 노력이 돗 보인다. 柳宗元은 柳州刺史로 부임하였을 때 「江嶺間爲進士者, 不遠數千里皆隨宗元師法, 凡經其門, 必爲名士」 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하였고,[53] 韓愈 역시 그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韓門弟子」 라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54]

그리고 당대 후기 과거가 교육 발전에 끼친 적극적인 영향은 부단 사학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 교육의 보편화를 앞당겨 줌으로써 인반인들의 학습 의욕 제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당시 士人들에게 가장 환영을 받았던 진사과의 경우 경학보다는 문장력 구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꼭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의 독학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당 후기 급제자 가운데에 가정 교육을 통해 급제한 실례는 많이 볼 수 있다.

①. 君子唯門調戶選, 徵文射策, 以取祿位, 此行已立身之美者也. 父教其子, 兄教其弟, 無所易業, 大者登臺閣, 小者任郡縣, 資身奉家, 各得其足. 五尺童子, 恥不言文墨焉.[55]

②. 幼學之年, 不蒙師訓, 因感隣里兒稚, 有父兄爲開學校, 涕咽發憤, 願知

52) 嚴耕望, 「唐人習業山林寺院之風尙」 (『唐史研究叢考』, 香港, 新亞研究所, 民國58年 10月), pp.367~424; 高明士, 「唐代私學的發展」 (臺灣大學 『文史哲學報』, 第6期, pp.219~283)에 상세하다.

53) 『舊唐書』 卷160上 「柳宗元傳」.

54) 『新唐書』 卷176 「韓愈傳」.

55) 沈旣濟 『詞科論』 : 『通典』 卷15 「選擧3」 에 보임.

「詩」·「書」. 慈母哀臣, 親爲教授. 年十有五, 得明經出身.[56]

③. 輕年不出墅門, 晝講經籍, 夜課詩賦.[57]

그 외 李德裕도 자신의 아들과 동네 아동들을 모아 詩賦를 교수, 이른바 가정교사 사례를 볼 수 있다.[58]

비록 과거 급제라는 현실적 목적 성취에서 야기된 가정 교육의 보편화는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成聖成賢」의 教育理想[59]과는 전혀 다른 면으로 작용하였지만, 지식 및 문화 소양의 일반화에는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학의 발전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국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도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특별히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양호한 교육 기풍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송대에 이르러 훈고학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고에서 나온 성리학의 출현 배경도 어쩌면 이러한 분위기가 그 기반을 마련해 주었을지 모른다.

Ⅳ. 학교 교육 진흥책

당대 후기 사학 교육의 발전은 국가 교육 발전의 적극적인 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요구하는 吏才 양성을 국가 정부가 장악하지 못하고 이를 민간에 맡겨버리는 것은 정치 체제의 혼란, 나아가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서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通典』·『冊府元龜』·『文獻通考』등에 실려있는 「學校」나 「選擧志」에 관한 기사를 보면 당대 후기는 대부분 과거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60]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과거 급제자를 포함한 士人들을 학교 교육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인상깊게 느껴지는 부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틀어 졸자는 학교 교육 진흥책으로 부르고 싶다.

---

56) 『元稹集』 卷33 「同州刺史謝上表」.
57) 『舊唐書』 卷177 「裵休傳」.
58) 『舊唐書』 卷174 「李德裕傳」 및 卷177 「劉鄴傳」.
59) 高明士씨는 중국 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를 聖賢의 경계를 추구 내지는 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동아시아 제국의 전통 교육 특징이라 하였다. 『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臺北, 國立編譯館, 民國73年 1月).pp.356~358.
60) 金諍씨도 中唐 이후는 科擧를 통한 儒學復興의 시대라 하였다. 앞의 책, pp.86~88.

(1) 四門學 교육의 개방

四門學은 원래 周代 四門 교외에 학교(虞庠)를 설치한 것에서 유래한다.[61] 그러나 박사·조교 등 정식 學官 체제를 갖추어 교학을 실시한 것은 북위 효문제 태화 20년(496년) 낙양으로 천도하여 태학과 같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부터이다.[62] 당시에는 이를 「四門小學」, 즉 소학 교육 기관이었다. 그 후 북제를 거쳐 수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가 출현함에 따라 대량의 지방 관리를 양성할 목적에서 국자학·태학과 함께 중앙 3學으로 편입되었고, 교육 성질도 대학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학생들의 품계는 있어 국자학이나 태학에 비견할 수 없었지만, 인원 수는 오히려 많았었다.[63]

당대 사문학은 隋制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나, 입학 조건은 전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고 학생수 역시 전대에 비해 많아졌다. 『唐六典』 卷 21 「國子監·四門博士條」 및 『新唐書』 卷44 「選擧志」 내용에 의하면 중하층의 관리자제(文武官 7품 이상 및 侯伯子男의 子)를 포함, 서민자제의 「俊士生」 까지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수는 전자는 5백명, 후자는 8백명, 합계 1,3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규모면에 있어 당시 국자학(300명)이나 태학(500명)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당시 이처럼 방대한 학생을 모집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신분이 주로 중하층의 자제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앙집권적 지방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주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문학 교육 및 그에 대한 개혁 조치는 대부분 현종 이전의 전당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당시 여러 조치들 가운데 현종 개원 21년(733년) 5월에 내린 다음과 같은 조칙은 사문학 나아가서는 중국 교육 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사료를 재해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許百姓任立私學, 欲其寄州縣受業者, 亦聽. 州縣學生,
> 年二十五以下八品者, 若庶子年二十一以下通一經及未通

---

61) 『禮記·祭義篇』에 「天子設四學」이라 한 것에 대해 漢代 鄭玄은 「周四郊之虞庠也」라 주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교육 내용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는 사문학이 국자학이나 태학과 마찬가지로 學館 및 박사·조교 등 學官 조직을 갖추어 교학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위 효문제의 사실이 가장 빠르므로 이를 직접적인 연원으로 보고 싶다.

6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魏書』 卷84 「儒林傳」 및 『唐六典』 卷21 「國子監·四門博士條」 등에 상세히 전하고 있다. 사문학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高明士, 「唐代學制之淵源及其演變」(『歷史學系學報』, 國立臺灣大學, 第4期, 民國66年 5月), pp.203~206에 상세하다.

63) 당시 학생들의 입학 조건 및 학관 편제는 『隋書』 卷27·28 「百官志」에 상세하다.

經而聰悟有文辭史學者, 入四門學爲俊士. 諸州貢擧·省試不第, 願入學者, 亦聽.64)

첫째, 일반 백성에 대해 사학 설립을 허용하고 주·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학을 정식 교육 기관을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학을 관학 교육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원래 사문학의 입학자격은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 및 侯伯子男, 그리고 서민자제 가운데 俊士者였고, 입학 연령은 14~19세이다.65) 그런데 위 조칙을 보면 나이는 25세 이하, 품계 또한 8품·9품으로 낮아지고 있다. 서민 자제의 경우 21세 이하 가운데, 文辭·史學者 소위 총명자는 누구나 사문학 입학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특별히 「俊士」66)로 우대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문호를 개방하면서 기존 교육 체제에 대해 대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에 이르러 기존 문벌 귀족 위주의 교육 체제 및 경학 위주의 교육 내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역활을 사문학이 담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諸州 공거인 가운데 省試 낙제자에 대해서도 사문학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과거 준비를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결국 당대 사문학은 국자감 내부의 교육 체제로 볼 때에는 지방 관학과 중앙 관학의 연결 고리를 담당하는 역할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학과 사학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관학 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평민화 교육을 지향함으로서 기존 관학 교육의 특성, 이른바 祖父의 품계에 의한 학관 입학의 선천적 결정 및 유학 교육 위주의 교육을 파괴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학 교육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부족한 관학생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위·진 남북조 이래 고착되었던 문벌 귀족 사회의 몰락 및 과거 제도 개혁에 따른 학생들의 현실적 욕구 변화 등이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

64) 『唐會要』 卷35 「學校」 條.

65) 『新唐書』 卷44 「職官3」.

66) 唐代 사서에서 「俊士」 란 단어는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唐代 과거 과목 가운데에도 秀才·明經·進士 등과 함께 俊士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俊士」 는 이와 같은 과거 과목의 호칭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는 원래 『禮記』 卷3 「王制篇5」 에서 말한 「命鄕論秀士,升之司徒,曰選士;司徒論選士之秀者升之學,曰俊士」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 대상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초 이를 전형적으로 실시한 것은 梁武帝였다. 그의 「舊國子學生, 限以貴賤, 帝欲招來後進, 五館生皆引寒門俊才, 不限人數」 (『隋書』 卷26 「百官志」)에 대해 『唐六典』 卷21 「國子監」 條에서는 「卽今之俊士也」 라 하였다. 다시말해 唐代 四門學의 「俊士」 제도는 祖父의 官階를 떠나 하층 자제(평민자제 포함)를 대상으로 한 학교 학생에 대한 호칭인 것이다.

(2) 국자감 내 고시 학원의 설치

전통 중국의 학교 교육은 先教育·後入仕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입사, 즉 관리 진출의 절대 목적도, 수단도 아니었다. 당시 과거는 진사과가 유행이었지만, 詩賦를 중시하는 진사과 내용은 경학 위주의 학교 교육과 배치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현종 천보 9載(750년) 과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국자감 내의 진사과 응시생을 위해 설치한 고시학원 廣文館은 과거 제도와 학교 교육의 전형적인 조화임과 동시에 모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唐摭言』 卷1 「廣文」 條에서는 이를 설립하게 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다.

> 玄宗天寶九載(750年)九月, 詔於國子監, 別置廣文館, 以擧常修進士業者, 斯亦救生徒之離散也.

즉, 「生徒들의 離散」을 막기 위해 설립한 것이 주요 동기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야의 진사과 중시 풍조가 현종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했다는 점,[67] 현종 개원 이래 국자감생의 수준 저하로 합격률이 대단히 저조했다는 점[68] 등을 들 수 있다. 때문에 귀족자제들의 특권 보장 및 국자감 자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료에서처럼 현종은 學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조서를 내렸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국자학 건물을 빌려 학관으로 사용하였을 뿐[69] 독립 학관 설치에 관한 기사는 볼 수 없다. 이는 『唐語林』 卷3 「規箴」 條에 「自天寶九載置廣文館, (憲宗)元化中, 堂宇虛構, 材木堆積, 主者或盜用之」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광문관을 별도 학관으로 설치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으나, 재목만 쌓아둔 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대란을 만나게 되었고, 결과 그 재목들마저 도둑을 당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말에 이르기까지 광문관 건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 학자들 가운데에는 아예 중앙 관학에서 이를 제외해 버려 국자감 6학 체제만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광문관 교육은 文士博士 2명(정6품상)과 조교 1명(품계 미상),[70] 학생 60명[71]으로 구

---

67) 高明士, 앞의 「唐代學制之淵源及其演變」, p.206.

68) 玄宗 開元 17年(729년)3月 國子祭酒楊瑒上言…「伏聞承前之例,每年應擧常有千數,及第兩監,不過一二十人. (中略)今監司課試,已退其八九;考功及第,十又不收一二.」(『唐會要』 卷75 「帖經條例」 條).

69) 『全唐文紀事』 卷83 「辨證」 條.

70) 『舊唐書』 卷44 「職官志」.

71) 『新唐書』 卷48 「百官志」. 단, 東都 洛陽 國子監의 경우는 10명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新唐書』 卷48 「百官志」에 보임.

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국자학 80명, 태학 70명, 사문학 300명에 비해 결코 적은 인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교수 과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사과 응거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제에 필요한 詩·賦·雜文 등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한편, 『舊唐書』 卷44 「職官志」에서는 肅宗 至德(756년)에 이르러 광문관은 폐지되어 버렸다고 전하고 있는데, 『新唐書』 卷44 「選擧志」에는 헌종 원화 2년(807년) 西京 長安의 국자감 제도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다시 설치되었던 것 같다. 그 후 당말에 이르기까지 이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며,[72] 송대에 이르어 그 규모는 학생수가 이미 2,4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다.[73]

결국 광문관의 출현은 교육을 과거의 범주로 예속시키면서 과거 위주의 학교 교육을 조장한 결과나 다름없다.

(3) 官學生에게만 貢擧 참여 허용

당대를 통틀어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 3번 이상은 실행하였던 것 같다. 먼저 다음에 제시하는 사례를 참고해 보자.

①. (玄宗)天寶十二載(753年), 「詔天下擧人, 不得充鄕賦, 皆須補國子學士, 及郡縣學生, 然後請擧.」 (『唐會要』 卷76 「緣擧雜錄」)[74]

②. 文宗太化7年(833年) 「公卿士族子弟, 明年以後, 不先入國學習業, 不在應明經進士之限.」 (『舊唐書』 卷17下 「本紀」)

③. 武宗會昌5年(845年) 「公卿百僚子弟及京畿內士人寄修明經、進士業者, 並宜隷名太學; 外州寄學及士人並宜隷名所在官學; 仍永爲常制」
(『唐摭言』 卷1 「兩監」 條)

이러한 조치는 모두 관학 교육이 이미 관심사에서 멀어진 당 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일 뿐, 결과 역시 단기적인 조치로 끝나고 말았다. 그저 관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위 예문을 통해서도 강하고

72) 高明士씨는 吳仁璧의 경우 昭宗 大順 2年(892년)의 입학자로 보고 있다. 앞의 논문, p.207.
73) 『宋史』 卷156 「選擧志2」.
74) 그런데 『冊府元龜』 卷640 「貢擧部·條制2」에서는 「鄕賦」를 「鄕試」, 『舊唐書』 卷24 「禮儀志4」에서는 「鄕貢」이라 하고 있다.

드러나고 있듯이 학교 교육의 내실보다는 과거를 통한 인재 선발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 후기 교육 환경의 타락은 입신양명에만 절박한 나머지 학교를 「양사」의 장소가 아닌,「출신」을 조장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사인들의 관념도 문제였지만, 교육의 취약성은 더 큰 문제였다. 詩賦를 숭상하는 사회 풍조와 경학 중심의 전통 학교 교육이 상치되었을 때 학교 교육이 사회 기풍을 개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중심으로 예속되어 버린 것은 학교 교육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과거 제도는 기술면에 있어 인재 선발의 공정성과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75] 종래 귀족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한정되었던 入仕 특권이 점차 평민들에게 개방되면서 吏才 선발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학교 입학 및 교육 내용, 재학 시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은 여전히 귀족화·특권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학교는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擧子의「投牒自進」, 상부 기관의 추천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학교 교육의 과거 종속을 고착시켜버린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명·청 시대에는 학교 수업을 과거 응시의 필수 과정으로 규정하였지만, 학생들은 단지 적만 두고 있었을 뿐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弘文·崇文生擧의 선발

먼저 홍문·숭문관의 교육 성질에 관한 것 부터 살펴보겠다. 당대 홍문관의 연혁 및 성질에 대해서는 『唐六典』卷8「弘文館學士」條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하고 있다.

> 後漢有東觀, 魏有崇文館, 宋元嘉有玄丶史兩館, 宋太(필자주:"泰"의 誤記인 것 같음)始至齊永明有聰明館, 梁有士林館, 北齊有文林館, 後周有崇文館. 或典校理, 或司撰著, 或兼訓生徒, 若今弘文館之任也.

즉, 당대 홍문관은 후한 「東觀」 교육[76]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서적의 교열 및 정리, 관찬 사서 편찬 및 생도 교육 3종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태종 정관

---

75) 鄧嗣禹씨는 당대 과거 내용에 치중하여 일반 변천 8개 항목을 기술상의 변화로 제시하고 있다. 앞의 『中國考試制度史』, pp.84~87.

76) 『後漢書』卷61「鄧皇后傳」에는 安帝 永初3年(109년)에 내린 「中官·近臣於東觀受讀經典, 以教授宮人, 左右習誦, 朝夕濟濟」의 조서가 실려 있다.

원년(627년) 「京官職事五品以上子嗜書者, 共二十四人, 隸館學習書法, 兼習經史」하도록 詔令하면서 부터 갖추어졌다. 그 이전 홍문관은 장서 기구에 불과하였다. 그 후 講經博士가 임명되면서 홍문관은 교육 기구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게 되었는데, 입학 자격은 皇親國戚子孫 등 이른바 최고의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77]

『唐六典』卷8「弘文館學士」條에는「其學生教授·考試,如國子學之制」[78]라 하여 이들에 대한 입학 및 교육은 국자학에 준해 실시하였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교육에만 적용되는 말이다. 태종 이후에는 종전의 王公貴戚 자제들에 대한 소학 교육도 홍문관으로 통합되어 소학 교육과 대학 교육 두가지 성질을 겸비한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다.[79] 당대 홍문관 명칭은 현종 개원 7년(719년)에 이르러 최종 확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修文館, 昭文館 등 개명이 잦았었다.[80] 崇文館은 魏文帝의 숭문관 제도에서 연원하는 것으로,[81] 당대에 이르러서는 태종 정관 13년(639년)에 처음 설치하여 「崇賢館」 혹은 「太子學館」으로 불렀으며, 東宮에 예속되었다. 그 후 고종 현경 원년(656년)에 이르러 태자 弘의 요청으로 直學士를 설치, 생도 20명을 교육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은 실시되었다. 숭문관 명칭은 고종 상원 2년(675년) 숭현관에서 개명된 것이다.[82] 기타 학생들에 대한 입학 및 교육 방식은 홍문관에 준해 실시하였다.[83]

이상과 같이 당대 태종 정관 이후 홍문·숭문관 교육을 실시하게 된 주요 배경은 최고의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소학 및 대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귀족 자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관리 진출의 길을 쉽게 열어 주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課試旣淺, 技能亦薄, 而門閥有素, 資望自高」[84]라 하듯 학업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고[85] 오직 문벌만 과시하는 장소였다. 이처럼 학습 능력이 저하된 자들을 대상으로 弘文·崇文生擧를 실시하기까지는 정부의 이들에 대한 모종의 시험 우대 내지는 편법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실 당시 進士策問을 보면 「경서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於經書所好何句), 성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자는 누구인가?(於古哲所慕何人)」[86]하는 정도의 도저히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었다. 원래 제도

77) 이들의 입학 규정은 『唐六典』卷8「弘文館學士」條에 상세히 보인다.
78) 『唐六典』卷8「門下省」條.
79) 多賀秋五郎, 『唐代教育史の研究』(東京,不昧堂,昭和28年 2月),p.24.
80) 당대 홍문관의 명칭 개명은 『唐六典』卷8「弘文館學士」條 및 「新唐書』卷47「百官志·弘文館」條에 상세하다.
81) 연원은 『唐六典』卷26「崇文館學士」條에 상세하다.
82) 이상『唐六典』卷26「崇文館學士」條 및『新唐書』卷49上「百官志」에 상세히 보인다.
83) 『唐六典』卷26「崇文館學士」條.
84) 『通典』卷17「選擧5·魏玄同疏」·『舊唐書』卷87「魏玄同傳」.
85) 『唐六典』卷2「尙書吏部」條에 「弘·崇生雖同明經進士, 以其資蔭全高, 試亦不拘常例」라 하였다.
86) 『權載之文集』卷40「宏文崇文生策問」.

상의 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반드시 大經·小經 각 하나 혹은 中經 가운데 둘, 그리고 「史記」·「漢書」·「東觀漢記」 및 「三國志」에 통달하고, 언어도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는 등 대단히 까다롭고 수준 또한 높았다.[87] 그 외 홍문관 및 숭문관에 적을 둔 학생에 대해서는 「自然升第」의 우대 조치도 있었다.[88]

결국 당대 弘文·崇文生擧制 및 홍문·숭문관 교육의 실시는 특권 계층들에게 교육 기회 및 관리 진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그들 중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자제들에 대한 교육 열정 및 수준의 저하는 그들 스스로가 체제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중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安史之亂을 기점으로 당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지만, 교육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종 개원 21년(733년)의 교육 대개혁 조치는 그 분기점으로 보아 충분할 것이다. 그 이전, 즉 중국사의 盛世라 일컫는 태종의 정관 시기 및 현종 개원 시기 중국 교육사의 발전은 학교 교육 중심의 인재 양성, 이른바 「養士」에 치중한 면이 역력하였지만, 후기는 과거 과목의 증설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데 급급한 「取士」의 시대였다.

중국의 전통 교육사에 있어 양사와 취사는 시종일관 군주 일인에 의해 계획·지배되었지만, 지식 분자의 仕途 야망과 군주의 통치 수명 연장 및 강화라는 현실적 요구에서는 일치되고 있다. 양사와 취사는 이러한 양자간의 욕구가 일치되면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는 중국사의 진정한 통일제국을 수립한 당대에 이르러 긴밀해짐과 동시에 특이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의 추이는 학교 교육이 일반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대신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사회 풍조가 고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원인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부의 관학 교육 장악의 실패, 학교 교육 내용과 과거 내용의 괴리성, 정치 개방성에 따른 사족 지위의 약화 및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대 후기 학교 교육이 침체하고 과거가 성행하였다고 하여 정부의 교육 사업이 위축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교육 발전 및 사회 개혁을 주도한 적극적인 면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정부의 관학 교육 장악 실패는 학교 중심의 교육이 서원 및 私家講學·가정 교육

87) 「唐六典」 卷4 「尙書禮部」 條.
88) 「唐會要」 卷77 「宏文崇文生擧」 條.

등으로 이전되면서 사학을 통한 교육 특권의 파괴 및 교육의 저면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송대 서원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나아가 서원의 관학화를 촉진시켜주는데 이바지하였다.[89]

둘째, 학교 교육 내용과 과거 내용의 괴리성은 경학 중심의 학교 교육 내용을 개변하는 데에 이바지하였고, 나아가 훈고학에 대한 반대급부적 학문인 송대 성리학 출현의 토대가 되었다.

셋째, 정치 개방성에 따른 사족 지위의 약화는 唐末·五代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었고, 나아가 중국 사회를 換骨奪胎하여 송대 서민사회 출현의 기반이 되었다.

이상 당대 후기 학교 교육 쇠락과 과거 성행 양자간의 消長 관계는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成聖成賢」의 전통 教育理想을 상실한 채 교육을 科擧圈으로 예속시켜버려 그 주변에서만 맴돌게 해 버렸다. 때문에 송대 이후 전통 교육 이상은 더 이상 교육 이상 수립의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재야의 전통 교육 정신 회복에서나 부르짖는 구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교육사가들이 송대 이후에서 중국 교육사의 발전 특징을 찾는데에 인색한 것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송대에는 과거를 폐지하고 태학생을 外舍·內舍·上舍로 분류한 후 최종 상사까지 승관하면 이들에게 벼슬을 주고 임관하는 소위 「三舍法」을 시행하였지만, 실패로 끝나버리자 학생들은 다시 서원이나 산림 寺院으로 돌아가 버렸다.[90] 학생들의 離散과 聚合, 이것이 송대 이후 중국 교육사 진행의 정해진 규칙이나 다름없었다.

89) 丁鋼·劉琪共著, 『書院與中國文化』 第3章(上海人民出版社, 1992年 10月), pp.75~86.
90) 송대 학교 교육제도 및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苗春德主編, 『宋代教育』 (河南省, 河南大學出版社, 1992年), pp.30~64에 상세하다.